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 '우럭' 운영

<우리동네 나눔트럭>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 500가구 대상
긴급식품 푸드팩 600가구 대상 지원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오는 11월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주형 읍·면 식품나눔마켓 우리동네 나눔트럭(이하 우럭)'을 운영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 지원 사업(3년)으로 진행되는 '우럭'은 시내권에 위치한 매장형 푸드마켓 이용이 어려운 읍·면지역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이동푸드마켓이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까지 차량구입 및 기본설비를 완료해 11월부터 주 1회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용대상을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 7개 읍면지역 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식품 푸드팩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도서지역 복지자

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10월 우도와 추자지역에서 '현장나눔 푸드뱅크'를 실시했다. 현장나눔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푸드뱅크 배분체계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도내 이웃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장나눔 푸드뱅크를 통해 우도면 60가구와 추자면 165가구에 주·부식류가 담긴 식품나눔상자를 지원했다.



▲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이 '제주형 읍·면 식품마켓 우리동네 나눔트럭' 전달식을 하고 있다.

New www.jejubokji.net

제주복지넷 본격 가동

제주복지 '넷'의 기능 '넷'

하나

키워드·생애주기별·상황별·복지TV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 검색

둘

제주도내 1112개 (2020.11월 현재)
사회복지 시설·단체 정보 검색

셋

분야별 상담전화 리스트와
복지·법률·노무상담

넷

교육신청, 회원 간 소통, 사업안내 등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항 확인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소개

- | | |
|---|---|
| <p>■ 종합 2면</p> <p>복지정보 제공사업 업무협약식 가져</p> <p>■ 종합 3면</p> <p>2020년 자원봉사 명예의전당 등재자는?</p> | <p>■ 사회복지소식 6면</p> <p>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p> <p>■ 오피니언 7면</p> <p>시론·칼럼·법률상담터</p> |
|---|---|

<나눔 참여기관·기업광고⑥>

싱싱한 당일계란을,
집에서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애월아빠들
계란배송

쇼핑몰
www.aegg.kr

전화문의
070.7723.9949

지금 낳고
갑니다

애월아빠들



계 / 란 / 가 / 정 / 배 / 송

복지정보 제공사업 업무협약식 가져

지난달 27일 바람소리홀서...14개 기관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7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14개 협약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보 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 날 협약식은 복지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사업인 ‘복지TV운영’ 사업과 ‘지역복지(통합복지 하나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조성, 사업홍보와 평가

등을 담당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기관은 해당분야 복지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각 매체별로 제공되는 복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온라인 및 전화 상담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조사연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방안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진은설 조사연구위원(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이사장)은 지난 7월 6~21일까지 제주도민 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이 46.8%, 만

족 33.5%, 불만족 9.7%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질 불만족, 청장년은 복지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진 연구위원은 “노인 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4회 노인의 날...유공자 22명 표창

제주도는 2020년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아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선정해 정부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행정시 별로 지난달 7일 시상식만 진행했다. 수상자로는 국무총리 표창 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20명 등 총 22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김창현 남원노인대학 학장이 선정됐다.

김학장은 합창단 운영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는 제주시 총무과 유희창 주무관이 받았다. 유 주무관은 경로당 활성화·노인일자리 지원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표창 수상자 명단

▲ 모범노인 이승찬, 김준택, 송옥연, 고순녀, 안정훈, 고석산, 강관수, 강천홍, 주관섭, 김승종 등 10명 ▲ 노인복지 기여자 김흥기, 양수범, 송정열, 허무생, 문정심 등 5명 ▲ 모범노인단체 제주시 한림1리경로당,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안덕면분회 등 2곳 ▲ 유공 공무원 도 노인장수복지과 고경희, 제주시 이도2동 박순희, 서귀포시 대천동 최은정 등 3명으로 총 20명이다.

다채로운 비대면 공모전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비대면 공모전이 마련된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오는 19일까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확산과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통한 장애·비장애인의 사회통합 공동체 형성을 위한 언택트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2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는 유치부, 초·중·고등부, 청년부(만 19~3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사생대회, 장애이해 도전 골

든벨, 베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 공모전이 진행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 사례, 응원 메시지로 나만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그린 작품(에세이 등)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격려, 응원, 칭찬을 표현한 작품(포스터, 표어, 그림, 스토리가 있는 네 컷 만화 등)이다. 공모전에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064-710-9830~9834.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장

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KT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코로나19 시기에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내용, 일상생활 중 이동의 불편함이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식개선)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작품은 HD화질(1280×720)이상, 러닝타임 2분~5분 이내로, 홈페이지(<http://www.ktcontent.jejuhab.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064-702-029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육 208kg ▲유진상사=오푸기식품 2,642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 339봉 ▲금강수산물유통=고등어 20kg ▲김만덕 기념관=쌀 500kg, 계란(30구) 50개 ▲김태연=생활용품 11개 ▲공양공양=돼지고기 10kg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한라양계=계란15구 300개 ▲대한땅콩상사=김 420개 ▲던킨도너츠 탑동점=빵 561봉 ▲텔문도=빵 34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218봉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9,347개 ▲땅스부대찌개 노형점=두부 24kg ▲땅스부대찌개 삼화점=두부 36kg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빵 532봉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488봉 ▲롯데제과=과자 11,070개 ▲모양=빵 141봉 ▲미인빵=빵 114봉 ▲비엔누아즈=빵 151봉 ▲소민떡방=떡 160개 ▲약속다방=쿠키 25봉 ▲이든이네=떡 30kg ▲제주보리촌=보리빵 510개 ▲주인성=돼지등뼈 60kg ▲참새방앗간=떡 724개 ▲코시롱듬비=두부 75개 ▲픽스커피 공단점=빵 59봉 ▲해맑은떡방=떡 265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9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460,000	42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00,000	3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55,000	0
푸 드 마 켓 후 원	2,815,000	10,092,000

발 행 안 내

■발행인 : 고승화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제주시 청풍남 8길 12-1)

■편집인 : 김성건

■편집위원 : 김길웅 · 김범훈 · 한영조

■편집기자 : 김승지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2020년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오는 20일까지 접수

제주도민으로서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명예의 전당’의 새 얼굴을 찾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제11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를 추천 받는다.

명예의 전당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제주도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활동기록을 새겨 그 헌신과 노력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추천은 제주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가 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대상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해 추천기준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다.

추천기준은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 중인 자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 중인 자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다.

신청은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에게는 2021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시 등재기념 순금배지 및 기념패가 수여되며, 공적 및 활동사항이 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명예의 전당’ 코너에 등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4)726-5786 으로 하면 된다.

제41회 김만덕상 시상식 열려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제41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을 갖고 의녀반수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기렸다. 이번 제41회 만덕제 봉행과 김만덕상 시상식은 온라인 및 특집 생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진>

올해 김만덕상은 김옥산씨(66세)와 김순희씨(58세)가 각각 봉사부문과 경제부문에 선정됐다. 김옥산씨는 1990년 한국부인회 활동을

시작으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 및 물품후원 등 나눔과 배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순희씨는 청소대행 전문업체 (주)오현의 대표로 전체근로자 125명 중 여성 근로자 107명, 60세 이상 노인 82명으로 취약계층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2017년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지역고용 촉진 및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V-star 클럽 배지·포인트카드 전달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6일 자원봉사자의 명예감 고취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V-star 클럽’ 배지와 포인트 카드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전달식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모든 도내 자원봉사자 중 누적 봉사활동시간을 나누어 상위 등록자 총 3명을 선정했으며 3,000시간 박민택 자원봉사

자, 5,000시간 변명호 자원봉사자, 10,000시간 박정자 자원봉사자가 각 시간별 대표로 배지와 카드를 전달받았다.

‘V-star 클럽’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의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누적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자 배지와 포인트 카드를 지급해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전달식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웃사랑식품 기탁 눈길

제주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 임직원일동은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43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식품(쌀 600kg, 라면 640팩)을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

해 지정기탁했다.

고봉주 조합장은 “앞으로도 자원연계 및 지속적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증진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조순호)는 지난달 28일 협의회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정보·기술

인력교류를 통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돕는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도내 감정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및 상담에 대한 홍보 ▲도내 감정노동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상호연계 ▲기타 양 기관이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데일리 마스크 3만장 기부



제주특별자치도 크리켓협회(회장 김 신)와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은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

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해 제주도내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리미엄 데일리 마스크 3만장을 전달했다. <사진>

크리켓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



지난달 7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서 진행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강사 양성 등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지난달 7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사진> 개소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등 기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제주 지역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의 허브 역할로서 양성 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인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는 제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센터는 앞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난 6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양성평등 교육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운영인력을 채용, 센터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합돌봄 세미나 개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부설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이사장 최영열)는 제주시와 함께 지난달 16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서비스 방향성의 제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안동우 제주시장과 최영열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 방향(발표자 제주시 주민복지과 안진숙 통합돌봄팀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발표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제주안심코드 사용 복지시설 모집

제주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앱 사용을 위한 QR코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력 및 접촉자 조화를 신속하

게 할 수 있는 역학조사 시스템과 QR코드 생성 및 인증시간 단축으로 이용자·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용자의 경우 제주안심코드 앱을 설치하면 QR코드를 생성할 필요 없이 카메라 1회 촬영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별도 앱·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QR코

드 출력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있다.

QR코드 신청은 9일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안심코드 사업장 등록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로 신청 하면 된다.

소/식/마/당

(무순)

상품권·물케익 기부 훈훈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지난달 7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일만원권) 50매와 물케익 2박스를 기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국민행복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감동 스토리를 창출하자’는 의미의 ‘행복에감활동’(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 인권특강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7일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복지 인권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에게 노동권이란?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복지향상 노력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다솜로타리클럽(회장 도경 고지원)은 지난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100만원 상당 이웃사랑식품(국수소면 345개)을 기부했다.

고지원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만덕 사랑의 쌀 전달



(사)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와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최근 ‘김만덕 사랑의 쌀’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념관은 일도이동과 삼도동, 봉개동, 오라동의 홀로 사는 어르신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사랑나눔푸드마켓에 1.4톤의 쌀, 쌀국수 3,000개 등과 휴지를 전달했고, 조천읍 어르신가정에도 물품을 전달했다.

희망&집수리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 광동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 최성원), 제주수눔음 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성복)는 공사 회의실에서 희망&나눔 집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도내 주거환경개선의 필요한 주택을 발굴하여 개선·정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강옥련)는 최근 신임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활동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안전백발백중과 소화기체험, 응급처치교실, 재난VR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 소/식/마/당 (무순)

효(孝)교육 마술 공연 펼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전문 마술극단 엔터테인먼트 마술하는곰(대표 이민중)과 협력해 지난달 13일 선도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효(孝)의식 함양 및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마술 공연’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 5회로 진행된다.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 오픈식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는 지난달 22일 쉼터 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층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 후원(5000만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공사를 완료했다. 향후 가솔위기청소년들의 성장과 케어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 신체 능력 향상 도모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현명현)는 올해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향상을 위한 ‘뉴스포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발달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플로어컬링과 토스볼로 진행된다.

이주여성가족 원에 프로그램 운영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지난달 2일 이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수경재배식물 가꾸기와 새싹보리 재배하기, 콩나물 재배하기 등 총 11개 작품을 완성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새싹보리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콩나물은 가족들과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기적 저녁식사 제공 호응



보말보말식당(대표 이미라)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원장 박주현) 장애인과 직원, 제주올레라이온스클럽(회장 신영화)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보말보말식당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날 함께한 제주올레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고 했다.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청년상임위원회와 대학생 사회복지 서포터즈는 지난 9월 28일 추석을 맞아 제주소나이그룹홈(원장 김완숙)을 방문해 명절선물을 전달했다.

이 날 청년상임위원회와 대학생 사회복지 서포터즈는 코로나19 상황에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동 현황과 종사자들의 고충,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센터 이용자 선물 전달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김태균)는 최근 센터 이용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김태균 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에 작은 선물이지만 센터 이용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9월 3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2차 시설 휴관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긴급돌봄 일 1회 이용자 전화상담, 주1회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사랑 나눔 기부금 전달 눈길



하나은행 제주본부(지점장 문상도)와 아이코리아 제주지부(지부장 이정선)는 최근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성지요양원(원장 한영우)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랑 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하나은행 제주본부와 아이코리아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나눔 실천 앞장



제주지방우정청(청장 이동명)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재활시설 제주시희망원(원장 이경근)을 방문해 150만원 상당의 가전기기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희망원 관계자는 “제주지방우정청은 매년 희망원을 방문해 식사봉사 후원품 전달 등 지속적인 나눔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능보강 사업 실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0년 기획사업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빔프로젝트와 영상스크린을 설치했다.

또한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자제품 · 유아용품 기부



제주노블로타리클럽(회장 한경보)은 최근 아동양육시설 흥익영아원(시설장 김승언)에 2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청소기 1대, 밥솥 1대)과 유아용품(물티슈 22상자, 로션 5상자)을 기부했다.

한경보 제주노블로타리클럽 회장은 “영유아를 전담으로 하는 아동시설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100만원 상당 생필품 기탁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숨다리로타리클럽(회장 태을 강명순)은 최근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에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제주숨다리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⑭

하이픈봉사단(교육·학습)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눈길



▲ 제주시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하이픈봉사단(단장 김희정)은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봉사단체로 지난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된 후 지금까지 꾸준한 봉사활동을

을 실천하고 있다.

하이픈봉사단은 현재 10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시 일대에서 월 1회 정기적인 환경정화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청소년 재능기부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해 실시하고 있다.

하이픈봉사단 단원은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학교폭력·성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단장은 “우리로 인해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 온라인 공연 영상 제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문화·예술 공연 분야 지역사회봉사단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공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되던 문화·예술 봉사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봉사단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영상 제작에는 느영나영문화예술단과 다문화난타봉사단, 제주들꽃합창단이 참여했다.

느영나영문화예술단은 20명의 예술인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색소폰 연주와 한국무용, 노래 공연을 선보였으며, 다문화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다문화난타봉사단은 난타공연, 전

통 춤, 어린이바이올린, 핸드벨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제주들꽃합창단은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다.

비대면 온라인 공연 영상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취약계층 사랑의 빵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최근 ‘나눔배움’이라는 주제로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직업재활 활동의 일환으로 빵제작에 참여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시설의 지원필요성 등 공공구매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 사랑의 손길을 보내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지역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에게도 추석을 앞두고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인세대 200가구 식품 지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최근 안동우 제주시장을 찾아 거동불편 취약 노인세대 200가구를 위한 추석상 차림 장꾸러미를 전달했다. <사진>

추석상 차림 장꾸러미는 제주산 오겹살 1kg, 한우양지국거리 630g, 옥돔 1마리, 건미역 1개 등 총 7만원 상당의 제주특산품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이 날 제주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



대 120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상 차림을 위한 장꾸러미’를 지원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경매 중단과 전사 휴업 등 긴축 비상경영 중인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해 89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2)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 중심 사업 진행

제주도내 환경파괴와 사회복지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지면을 통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법인 소개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창윤)은 건강관계망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제주시 일도2동 생활문화공동체로 2017년에 설립됐다. 현재 58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단 늘숨창작소

중장년, 경력단절 등 취약계층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살린 염색과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업사이클링, 자원재활용 사업 등 제주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꽃 마을카페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주민참여강좌와 힐링 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 간 갈등 해소하고 건강한 마을을 만

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림책창작교실, 마을미디어교육, 어린이만화창작수업, 제주전통방식을 결합한 요리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공동체 설립·지원

2017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설립 교육, 세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5개 팀을 선정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관사업

규모별 회의실과 운동실, 실습용 조리기구가 완비된 공유주방을 대관하여 조합원과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여성의 문제를 지역자원



▲ 조합원들이 염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과 연계해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먼저 돌봄은 수놓을 육아나눔터, 키움배움터 등의 돌봄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놀이사 양성프로그램 진행, 경력단절여성 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프로그램과 자격증 지원제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론

‘바르다, 김선생’

읍내에서 시내 아파트로 이사했다. 김밥이 생각나 내외가 연동 거리에 나섰다.

그만그만한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유독 눈이 쏠린 곳. ‘바른 김밥 식당’. 김밥천국, 자매김밥, 둘둘김밥, 김밥고수…. 흔한 이름들은 봐 왔지만 ‘바른 김밥’이란 소리는 금시초문이다. 바른 김밥이라니. 어떻게 생긴 게 그렇다는 건가. ‘어딘가 바르지 못한 김밥도 있으니 그러겠구나.’ 조그만 자극에 호기심이 작동했다.

타협없이 재료 품질 지켜

옆 사람에게 제안했다. “저 간판 좀 봐요. 한 줄씩 먹어 볼까요?” “훗, 그래요. 간판이 재밌네.” 정말이지 간판에 끌렸다.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동업자들로 보이는 네 젊은이, 주문이 들어왔을까. 테이블에 손님은 없는데도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다. 의도적으로 보인다. 김밥을 말고 있는 김이 까

만색이니까.

초가를 하오, 소슬바람이 들락거리는 좁은 식당 안은 그렇고, 두 줄만 포장해 달라고 했다. 김밥 덩이가 굵직해 보인다. 한 줄에 착한 가격 5천원. 집에 와 풀었다. 다섯씩 줄마다 몇 조각 단무지도 들어 있다. 둘이 하나씩, 출출하던 참이라 삼시에 바닥이 났다. 둘둘 말아 놓은 속에 들어가야 할 것들의 조합이 잘돼 있어 먹는 데 속도를 냈을 것이다.

‘바른 식당’이라 내걸 만하네. ‘김밥이란 게 원체 신선하게 다가올 것도 아니지만, 먹고 난 뒤 느낌이 나쁘지 않다. ‘바르게’ 만들어 그런가.

치다꺼리하느라 들고 왔던 조그만 종이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선뜻 눈이 몇 줄의 글에 쏠렸다.

“바르다, 김선생”-

〈김선생의 비밀〉

“재료의 품질과 신선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에, 늘 기본에 충실한 바른 재료로 정성껏 만듭니다. 바른 마음을 갖고 정성을 담은 음식은 반드시

가치 있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바른 마음과 정성 담아

꼭 가슴을 찌르는 말, ‘재료의 품질과 신선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더 말할 게 없다. 그러니 김밥일지라도 바른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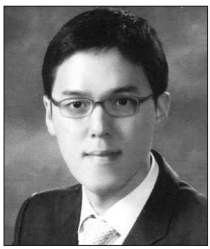
‘바르게’를, 그것도 ‘김선생’을 내세워 보장(?)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김밥 한 덩이도 ‘바르게’ 하려는 젊은이들, 참 돋보인다. 종이상자를 쭈셔 넣으며 또 한 번 중얼거린다. ‘재료의 품질과 신선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76

벌금, 범칙금, 과태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법을 지키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 중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은 주차 위반이나 과속 단속의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위반자가 ‘벌금’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벌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벌금이란 형법에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벌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소위 전과 기록에 해당이 된다.

이와 구별해야 할 것으로 범

칙금과 과태료가 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노상방뇨, 담배꽂초 버리기,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이 부과 대상이다.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 징계인 점에서는 위와 유사하지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보통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과속 단속장비 같은 무인 단속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비해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 현장에

서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통상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는 벌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대신 동일한 상황에서 범칙금의 금액이 과태료보다 다소 낮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운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데, 위반시(승용차, 20km/h 이하 경우) 과태료(4만원)나 범칙금(3만원)이 부과되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약 2배의 과태료(7만원), 범칙금(6만원)이 부과된다.

칼럼

코로나와 자연의 섭리

어둑새벽 도시공원으로 가는 인력시장 골목엔 적막감마저 흐른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는 국내외 노동자들이 모여 우리말과 중국말이 뒤섞이면서 시끌벅적하던 곳이다. 이제 그곳엔 외국인 노동자는 떠나고, 국내 노동자만 모여 일터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새벽 운동에 나서는 나의 일상은 변함이 없지만, 노동자들이 모이는 골목 풍경은 달라졌다. 코로나로 건설 경기가 침체하여 일자리가 없어진 탓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항공, 여행 등 경제활동 전반에 직격탄을 맞았다. 농어촌도 예외가 아니다. 애지중지 생산한 농·해산물 소비가 줄고 판로가 막혔다.

단풍철 청명한 하늘 아래 불어오는 소슬바람마저 스산하게 느껴진다. 불안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는 활기를 잃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행사나 동호인 모임을 할 수 없으니 낯선 세상처럼 느껴진다.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란 괴질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혹한 저주이다. 인간을 향한 바이러스 공격은 지구촌 곳곳에 인종과 신분, 빈부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는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살아 있을때 존재의 의미 가져

이번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현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숙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첨단과학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간은 위대한 자연의 섭리나 괴질 앞에는 하찮은 존재임이 드러났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지와 생태계를 파괴하여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인구 증가와 온실, 프레온 가스,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지구는 온난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대기 흐름에 불규칙한 영향을 주어 가뭄과 폭우, 미세먼지와 황사 등 갖가지 재해나 전염병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심정은 괴질로부터 탈출을 기도할 뿐이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내몰린 환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마지노선에 가로막혔다. 가족의 저승길조차 배웅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살아있는 자의 슬픔은 크다.

사람은 사회적 명예와 보람을 찾으려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한다. 죽음 앞에 부와 명예는 없다. 이는 사후에 인정하는 살아있는 자의 몫일 뿐이다. 인간은 비로소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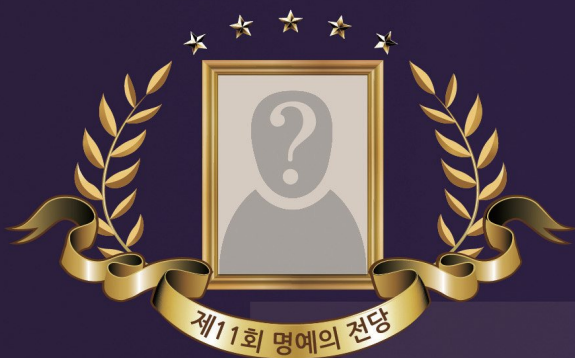


문익순
수필가

제11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제주도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활동기록을 새겨 그 헌신과 노력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



제1회 명예의 전당
김 영 순



제2회 명예의 전당
원 석 철



제3회 명예의 전당
변 명 효



제5회 명예의 전당
한 경 찬



제6회 명예의 전당
정 정 숙



제7회 명예의 전당
고 명 대



제8회 명예의 전당
전 용 운



제9회 명예의 전당
고 관 용



제10회 명예의 전당
홍 영 진

1. 추천대상

제주도민으로서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현재 활동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된 경우 추천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증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

2. 추천자격 : 제주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

3.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9(월) ~ 2020. 11. 20(금) 17:00
- 신청방법 : 이메일(jejubokji@hanmail.net)
- 문의전화 : 064) 726-5786

5.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등재기념 순금뱃지 시상 - 등재기념패 증정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